KIA 타이거즈가 좋은 성적으로 시즌을 출발하면서 관중석 열기도 달아오르고 있다. KIA는 5일부터 삼성을 상대로 챔피언스필드에서 주말 3연전을 갖고 관중 동원에 나선다. 〈KIA 타이거즈 제공〉

승리 부르는 타이거즈, 팬은 춤을 춘다

투타 밸런스로 승전보…안방·원정 상관없이 만원 관중 '호응'

오늘부터 홈서 삼성과 시즌 첫 대결…윌 크로우·윤영철 선발

'호랑이 군단'이 다시 한번 홈구장을 가득 채울 수 있을까?

잠실-수원 원정길에 나섰던 KIA 타이거즈가 안방으로 돌아와 5일부터 삼성 라이온즈와 주중 3연전을 갖는다.

이범호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내세운 KIA의 초반 행보는 좋다.

투타의 밸런스로 승수를 쌓아가면서도 그냥 지지 않는 다음을 위한 패배를 하며 팬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 큰 틀에서 체계적으로 팀이 돌아가면서 달라진 뒷심을 보여주고 있는 KIA, 관중석 분위기도 달라졌다.

KIA는 3월 23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진행된 키움 히어로즈와의 2024시즌 개막전을 만원 관중 앞에서 치렀다 .

이날 챔피언스필드에 2만500명이 입장하면서 지난 2019년 7월 13일 이후 첫 매진이 기록됐다. 7-5 승리로 개막전 6연패를 끊은 KIA는 분위기를 이어 개막 두 번째 경기 매진까지 노려봤지만 이날 경기가 비로 취소되면서 아쉬움을 삼켰다.

KIA는 시즌 첫 원정길에서도 만원 관중의 환영을 받았다.

KIA는 3월 29일 잠실로 가 두산 베어스와의 시즌 원정경기를 가졌다. 금요일 저녁 잠실 구장은 응원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날 잠실에는 2만3750명이 입장해 매진이 기록됐다.

그리고 30일, 31일에도 관중석이 가득 차면서 잠실 3연전 매진 사례가 만들어졌다.

비도 팬들의 열기를 막지 못했다. KIA의 두 번째 원정지인 KT위즈파크에 지난 2일 오후 늦게까지 비가 이어졌지만 이날 9682명이 입장해 야구를 즐겼다. 수요일이었던 3일에도 8050명이 입장했다. 앞선 주중 KT 홈경기 화·수 입장객이 4378명, 5271명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KIA 팬들의 뜨거운 열기를 확인할 수 있다.

홈에서 주말 경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KIA는 내심 '만원 관중'을 기대하고 있다. KIA가 기대하는 D데이는 6일이다.

평균 관중이 가장 많은 토요일 경기인 데다 비가 개면서 완연한 봄날씨가 기대된다. 또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아기 호랑이' 윤영철의 선발 등판이 예상되는 등 흥행을 위한 요소들이 잘 갖춰져 있다.

현재 예매 상황을 보더라도 주말 3연전 중 토요일 경기의 남은 좌석이 가장 적다.

흥행 분위기를 살리는 건 역시 승리다.

KIA 구단 관계자는 "하루 평균 500장 정도 추가로 예매가 이뤄지고 있다. 경기가 이기는 날에는 1000장 정도가 팔린다"고 귀띔했다.

주말 3연전 스타트를 끊는 윌 크로우가 분위기를 잘 살려준다면 KIA는 다시 한번 만원 관중과 호흡하면서 봄날 뜨거운 야구를 할 수 있다.

KIA는 2024시즌 홈 목표 관중을 75만명으로 잡았다. 올 시즌 홈에서 73경기를 치르는 만큼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평균 1만2740명이 챔피언스필드를 찾아야 한다.

현재 KIA는 홈에서 3경기를 치러 3만6500명(평균 1만2167명)의 관중을 동원했다. KIA가 초반 흐름을 타고 성적과 흥행을 동시에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충격 3연패' 광주FC "이제는 승리할 때"

K리그1 6R 6일 김천상무 원정

2승3패로 7위까지 하락 반전 절실

팀 득점 9골 1위 '창' vs '창' 격돌

광주FC의 가브리엘이 지난 3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인천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골을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광주FC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

광주가 6일 오후 4시 30분 김천종합운동장에서 김천상무를 상대로 하나은행 K리그1 2024 6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무거운 분위기에서 원정길에 나서는 광주에는 반전을 위한 '승점'이 절실하다.

광주는 지난 3일 홈에서 열린 인천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2-3패를 기록하면서 3연패 늪에 빠졌다.

이정효 감독의 첫 3연패다.

경기가 끝난 뒤 이정효 감독은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다. 칭찬해주고 싶다"며 "감독 이후 첫 3연패인데, 나는 괜찮다. 선수들의 자신감이 떨어질 것 같아서 걱정이다. 분위기를 바꿔서 김천전 준비를 잘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초반 극적인 연승을 만들어내며 우승후보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광주는 잇단 패배로 7위(2승3패)로 내려앉았다. 김천은 3승 2패를 기록하면서 2위에 자리하고 있다.

광주는 앞선 인천전에서 분위기를 뒤집은 빅톨과 가브리엘 '브라질 듀오'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

이정효 감독은 0-2로 끌려가던 후반 18분 빅톨과 가브리엘을 투입해 공세를 벌였다. 힘과 스피드 그리고 높이까지 더해 인천을 압박한 두 사람은 이내 결과를 만들었다. 후반 21분 가브리엘이 왼발 슈팅으로 골대를 가르면서 추격을 알렸다.

이후에도 두 사람은 문전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여러 차례 노출하며 인천을 흔들었다. 또 이날 빅톨이 성공적으로 K리그 데뷔전을 치르면서, 이정효 감독의 공격 옵션도 늘었다.

여기에 '빛고을 메시' 이희균이 확실한 광주 주축으로 자리매김했다.

인천전에서도 이희균은 더 매서워진 공격 능력을 보여줬다. 후반 10분 교체 멤버로 들어간 이희균은 빠른 발을 앞세운 드리블로 인천 공략에 나섰고, 1-2로 뒤진 후반 32분에는 두현석이 올린 공을 헤더로 연결하면서 동점골도 넣었다.

예상치 못했던 골키퍼 김경민의 퇴장 변수가 발생하면서 결국 후반 51분 제르소에게 결승골은 내줬지만 광주 화력을 확인할 수 있는 후반전이었다.

김천도 화끈한 공격으로 맞선다. 광주와 김천은 5경기에서 9골을 기록하면서 울산HD와 함께 팀득점 공동 1위다.

김현욱이 공격의 핵심이다. 김현욱은 울산, 전북, 수원FC를 상대로 4골을 넣으면서 득점 2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광주는 김현욱과 함께 앞선 수원FC전에서 멀티골을 넣은 이중민도 주의해야 한다.

창과 창의 맞대결이 예정된 상황, 김경민을 대신해 골대를 지킬 '수문장'에도 시선이 쏠린다.

김경민은 인천과의 경기에서 박스 밖에서 상대 역습을 저지하려다 핸드볼 반칙을 범하면서 레드카드를 받았다.

김경민의 부재 속 광주의 수비 집중력도 절실하다. 이정효 감독은 인천전이 끝난 뒤 '수비 불안'을 언급하면서 "수비 보완이 중요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철벽 수비로 지난 시즌 3위 질주를 펼쳤던 광주가 방패를 다시 세우고 연패를 끊고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김유정·박미숙 심판, 파리 올림픽 축구 심판 발탁

FIFA, 심판 요원 89명 확정

국제축구연맹(FIFA)이 2024 파리 올림픽 축구 경기를 주관할 심판 요원 89명을 확정한 가운데 한국을 대표해서 김유정(34) 심판과 박미숙(41) 심판이 각각 주심과 부심으로 뽑혔다.

FIFA는 지난 3일 홈페이지를 통해 파리 올림픽 축구 종목의 심판 89명(주심 21명·부심 42명·비디오판독(VAR) 심판 20명·보조 심판 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파리 올림픽 여자 축구는 현지시간으로 7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치러지고, 남자 축구는 7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펼쳐진다.

여자 및 남자 축구 결승은 모두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펼쳐진다.

이번에 발탁된 심판 요원들은 대회 개막 때까지 FIFA 기술 트레이너와 경기 분석가, 피트니스 코치, 물리치료사, 스포츠 과학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받게 된다.

한국 심판으로는 김유정 주심과 박미숙 부심이 선발되는 기쁨을 맛봤다.

김유정 주심은 2022년 U-20 여자 월드컵과 2023년 여자 월드컵에서도 주심으로 발탁된 바 있다.

또 박미숙 부심은 2002년 심판으로 입문한 베테랑으로 2023년 여자 월드컵에서 부심으로 활동했다.

/연합뉴스

'음바페 결승골' PSG, 3년만에 프랑스컵 결승행

스타드 렌 1-0 제압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PSG)이 킬리안 음바페의 결승골을 앞세워 스타드 렌을 물리치고 3년 만에 쿠프 드 프랑스(프랑스컵) 결승에 올랐다.

PSG는 4일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린 2023-2024 프랑스컵 준결승전에서 전반 40분 터진 음바페의 득점으로 렌에 1-0 신승을 거뒀다.

한국 국가대표 이강인은 선발 출격해 2선 공격수로 중앙과 오른쪽을 오가며 무난한 플레이를 펼치다 팀이 앞서나가던 후반 39분 랑달 콜로 무아니와 교체됐다.

이강인은 올 시즌 리그1 2골 2도움에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1골 1도움, 프랑스 슈퍼컵 1골을 더해 공식전 4골 3도움을 기록 중이다.

PSG는 발랑시엔을 3-0으로 완파하고 올라온 리옹과 5월 26일 블뇌브다스크의 피에르모루아 경기장에서 우승컵을 놓고 격돌한다.

이 대회 통산 최다 우승 기록(14회)을 보유한 PSG는 15번째 우승이자 2020-2021시즌 대회 이후 3년 만의 우승에 도전한다.

PSG가 경기를 주도했고 음바페가 초반부터 여러 번 득점 기회를 잡았으나, 이는 렌의 39세 베테랑 골키퍼 스티브 망당다가 보여준 대단한 선방 능력에 대부분 막혔다.

망당다는 전반 37분 음바페의 페널티킥을 오른쪽을 몸을 날려 막아내기도 했다.

그래도 선제골은 꾸준하게 골문을 두드린 PSG의 차지였다.

음바페가 전반 40분 역습 상황에서 때린 슈팅으로 선제골을 뽑았다.

골 지역 왼쪽까지 들어간 음바페가 수비수 둘을 앞에 두고 오른발로 때린 슈팅이 수비수 발을 맞고 골대로 들어갔다.

망당다는 굴절되지 않았다면 공이 향했을 방향을 예측하고 몸을 던졌다.

음바페는 프랑스컵에서 5경기 연속 득점 행진을 이어갔다. PSG는 5라운드(64강)부터 경쟁했는데, 음바페는 이날 준결승까지 모든 경기에서 득점(8골)했다.

PSG는 후반 34분 왼쪽에서 넘긴 컷백에 이은 마르코 아센시오의 문전 왼발 논스톱 슈팅으로 추가골을 올리는가 싶었지만, 이번에도 망당다의 선방에 가로막혔다.

/연합뉴스